

## 동해해수청,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봄철 기온상승으로 얼어있던 땅의 지반 침하 위험성에 대비하고, 봄철 짙은 안개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도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5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근 3년 강원해역 해양사고 117건 중 기관손상 38건, 인명사고 4건 중 사망 2명(중앙해심 통계)

주요내용으로 기관손상 사고 방지를 위해 여객선, 위험물운반선, 레저선박 점검을 강화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캠페인(3월)과 해양종사자 대상 선박안전·구명설비 시연회(5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무기 대비 해양·항만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항만 건설현장 7개소 항만시설 94개소 및 항로표지·등대 등 육·해상 해양교통시설물 177기와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위험물 하역·저장시설 6개소에 대해 안전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한 선박 통항과 무역항 질서유지를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입·출항 선박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한, 항내 과속, 불법 어로행위, 항법 위반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새벽 등 취약 시간에 항만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을 통해 선박과 시설물 안전확보와 인명사고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책임자	과 장	정철락 (033-520-6141)
		담당자	주무관	고규성 (033-520-6147)